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문집 30년만에 다시 부르는 노래 (유신독재를 넘어 민주로)

- 엮은이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펴낸이 : 이상경
- 펴낸곳 : 자인
- 발행일 : 2005년 5월 13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 1\_ 기독교학생회와 연세대 학생운동



이대수\_ 연세대 교육학과 75학번, 동성교회 목사, 한국민중교회운동연합 총무, 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 사무처장, (사)경기시민사회포럼 사무처장(현)

30년 전 이야기를 쓴다는 것은 기억의 한계와 더불어 쑥스러움이 있다. 긴급조치9호 시절의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되지도 못하였고 커다란 파장을 몰고온 조직사건도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렇지만 역사는 잊지 말아야 하고 또 기록해둬으로써 훗날 교훈을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구체적인 압력까지 더하여 글을 쓰게 되었다. 주관적인 착각도 있을 수 있고 본의 아니게 사건을 왜곡(?)하여 자기중심적인 무용담을 늘어놓을 수도 있다. 이런저런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시대의 증언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 줄 것을 기대하며 쓴다.

### 75년 봄 대학

30년 전인 1975년 3월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 입학했다. 입학하자마자 2·15조치로 석방된 민청학련사건 관련 구속교수와 학생들의 복직·복교 문제로 학내는 연일 시위 열기로 달아올라 있었다. 미션스쿨이었던 신일고등학교 시절부터 교목이셨던 이귀선 목사님으로부터 민청학련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언뜻 들은 적이 있었고, 구독했던 월간지 <신동아>에 소개된 민청학련사건과 구속학생과 교수들의 편지 등을 감동적으로 읽었던 터라 쉽게 학내 시위에

참가할 수 있었다. 당시 기독교학생회 관련 민청학련 구속자들이 많았던 것을 알고 있었기에 기독교학생회에 가입을 했고 서클 선배들이 마련한 신입회원 환영회 등 학교 안팎 자리에서 석방된 선배들을 만날 수 있었다. 석방학생과 교수의 복교·복직문제로 학생시위는 점점 대규모화되어지고 격렬해졌다. 문교부로부터 계고장을 발부받은 뒤 학교는 4월 4일자로 학교는 휴강이 되고 박대선총장은 사퇴서를 제출하고 말았다. 휴교는 했지만 신화적인 존재로 여겨졌던 선배들을 만날 기회가 조금은 있었고 얼마 후 학교는 다시 개강을 했다. 나는 당시 1학년 과대표를 맡은 상태였고 그래서 지도교수인 성내운 교수(작고)를 뵈 기회가 가끔 있었다. 잘 알지는 못하였지만 훗날 해직되신 처지가 되면서 이미 제적되었던 나로서는 학교 밖의 이리저리한 자리에서 더 자주 뵈게 되었다. 당시 학교에는 기독교학생회 선배들이 의식화 교육을 조금씩 하고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리버럴한 분위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선배들을 만날 기회는 주로 술자리 같은 곳이었지만 하여간 반가웠고 귀를 쫓긋 세우고 열심히 전설(?)적인 이야기들을 들었다. 당시 이덕승(당시 법학과3, 현 녹색소비자 연대 사무총장), 최민화(신학과 민청학련 관련 구속), 두 선배를 많이 따라다니면 이리저리한 것들을 배웠다. 당시 기독교학생회에는 이런저런 인연으로 좋은 친구들이 여럿 있었다. 그들은 함께 공부하면서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훗날에도 그 인연을 끊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김성만(물리학과)처럼 나중에 유학길에 올랐다가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수가 되어 오랫동안 옥고를 치른 친구도 있었다. 학교에는 사복형사들이 상주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낭만적인 대학생생활을 할 수 있었다. 축제도 참가할 수 있었고 미팅도 해보고 축제 때 학생회관 앞에서 판을 벌여놓고 정장을 입고서 원두커피를 만들어서 파는 일도 해 보았다.

### 본격적인 의식 학습과 수도권교회

여름방학이 지나고 당시 다니고 있던 감리교회에 회의를 느끼던 중 선배의 소개로 수도권교회(당시 김상근 목사 시무)를 다니기 시작하였다. 기장 교단의 분위기는 자유롭고 진보적이어서 마음에 와 닿았다. 당시 수도권교회에는 서울대를 비롯한 여러 동료들이 출석했고 학생운동을 하던 선배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경제사와 한국사 등 사회과학 이론학습을 하는 한편 교회의 사회참여활동과 신학에 관해 학습하고 토론했다. 당시 김병곤(서울상대 민청학련 관련.

작고) 선배로부터 정치경제학을 배웠던 것도 큰 도움이 되었다. 교회 간의 연합활동은 KSCF(한국기독교학생회 총연맹)와 연계되어 있었고 70년대 중반부터 교회 청년연합운동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잊혀지지 않는 기억도 많다. 사당동 판자촌을 조사하러 다녔고 양평동 독방촌에 가서 며칠씩 자취를 하면 살기도 했다. 1975년 11월에는 KSCF 기념행사가 있어 준비를 위한 연습을 했는데 나는 다행히도 빠지게 되어 1학년 때부터 찍히는(?) 일은 면할 수 있었다. 당시 민주화운동과 인권운동의 선봉에 서서 활동하시던 문동환 목사(수도교회 전임 목사)의 설교와 강연은 잊을 수 없는 감동이 되었다. 교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열정도 전폭적으로 공감하고 있었다. 교회에서는 여러 대학의 동료들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졌다. 당시 선구적인 목사님들의 민주화와 인권운동에의 참여 전통 속에서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에 대한 이해를 하며 사회의식과 신앙심이 충돌하지 않고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이 훗날 민중교회 목회의 길로 들어서게 만드는 기초가 된 것이라. 1981년 실제로 해직교수와 제적학생들이 모여 한국기독교교장교회 선교교육원(원장으로는 해직된 서남동 교수)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의 길을 걷게 되었다. 선교교육원은 당시 한신대학의 제적생들이 늘어나자 이들에게 목사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문교부 인가와는 상관없이 '자유대학'을 만든 것이다. 나치하에서 고백교회를 통해 정의로운 투쟁했던 전통을 가지고 있던 독일교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 70년대 중후반의 연 대 학생운동

75년 개학과 더불어 시작된 대규모 시위와 연이은 휴교령과 총장 사퇴와 시위 주동자들의 대량징계 등으로 학내는 침체를 겪고 있었다. 게다가 베트남의 통일과 종전 후 안보위기를 조장하면서 긴급조치9호가 발동되자 유신헌법을 비판하지도 못하고 비판을 해도 언론에 전혀 보도되지 못한 속에서 분위기는 점점 위축되어 갔다. 그렇지만 기독교학생회는 좋은 동료와 후배들이 많았다. 75년 학내시위로 이념서클들이 해체되거나 활동이 중지되면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당시 한국교회의 사회참여 분위기와 연관이 있을 것 같다. 학교 밖에서 배웠던 사회과학의 지식과 새로운 신학 그리고 사회참여의 교회 전통 등은 기독교학생회를 급진적인 운동단체로 만들어 가고 있었다. 신입생이 들어오면 의식화단체를 거치는 것이 필수였고 방학

중에 빈민지역에서 활동하는 도시봉사단(학생사회개발단 운동의 영향으로 자리잡았다)은 언제나 의욕이 넘쳐 났다. 반면에 학생프락치(이른바 장학생)도 있었다. 시위계획이 사전에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심되는 학생에게 별도의 허위 정보를 주고 나서 경찰의 반응이 오면 프락치로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에는 사복형사들이 상주했다. 그들은 주요 학생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였으며 그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특별한 약속장소를 개발하기도 했다. 그것이 바로 목욕탕이었다. 외박이나 자취생활로 피곤해진 몸을 쉬는 효과도 있었고 등을 밀어 주면서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니 일석이조였던 셈이다. 단 여학생과는 그렇게 만날 수 없었지만... 매년 여름과 겨울에는 농촌봉사활동을 갔다. 노동훈련이면서 동시에 농촌 문제, 사회 문제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10일 정도 함께 머물면서 돈독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서 좋았다. 대가족 단위로 구성했기 때문에 호칭상으로도 호형호제 했고, 엄한 규율도 있었다. 재래식 측간에서 불일을 제대로 보지 못해 찢찢매는 여학생들을 보면서 부르주아적이라고 짓궂은 엄포를 놓기도 했지만 대학생활에서의 낭만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은 분명했다.

### 김옥 로 향하던 길

1977년은 긴급조치9호 하에서도 학생운동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한 해였다. 1976년 겨울 박동선 사건이 전파되면서 12월 서울대에서 터져나온 시위는 겨울의 잠복기를 거치면서 봄을 준비하고 있었다. 학생들의 시위 움직임은 봄을 맞이하는 새싹처럼 일찍부터 자라나고 있었다. 나는 교회와 KSCF(한국기독교학생회 총연맹)를 통해 여러 대학에 선이 닿아 있었다. 그러다 보니 관악에서의 1977년 10월 초 반독재 시위 사건에도 내 이름이 나와 관악서로 연행되기도 했다. 내가 구속되고 나서 다른 대학으로 불뚱이 튕까 걱정했다는 후일담도 들었다. 당시 연세대에서는 시위를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커져갔다. 특히 기독교학생회 활동에 열심이었던 2학년들의 조속한 용기는 훌륭했다. 그렇지만 냉정하게 생각하면 정적인 인력의 재생산구조가 자리잡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후배들이 시위에 나서는 것은 만류해야만 했다. 기독교학생회만이 아니라 학내 여기저기서 학생운동의 새싹들이 자라고 있는 중이었기에 1년만 더 차분하게 실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시위는 불가피

했고 그래서 사람을 찾던 중 불교연구회 회장이자 휴학중이었던 이상훈(응용통계과3)을 만나게 되었다. 무슨 수업이었는데는 기억나지 않지만 강의실에서 토론을 하던 중 그가 던진 말,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야 성불할 수 있다”는 매우 신선한 한 마디가 내 귀에 꽂혔다. 초대 기독교와 원시불교의 민중전통 등 공통점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감하게 되었고 그래서 나는 그에게 시위에 참여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기독교학생회 후배 강성구(경영2)에게 소개해 주었다. 종교를 넘어선 연대라고 해야 할 것이다. 후배들의 전투적인 분위기를 이해할 수 있지만 결국 우려대로 답답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유신헌법 철폐, 긴급조치9호 폐지, 독재정권 퇴진’을 주장했던 1977년 10월 25일 대규모시위는 큰 효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그후 기독교학생회는 위축되고 연세대 학생운동도 한동안 침체를 겪어야 했다. 그것은 기독교운동사에서 애석한 부분이었다. 후배들은 선배들의 신화에 머물러 자족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워 하면서 대학생활을 보냈다고 했다. 좋은 선배가 사라져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못하면 좋은 운동가가 양성되기 어려운 법이다. 그후 기독교생, 청년운동권에서의 이른바 정체성 논쟁에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두고두고 되씹어야 했다.

### 감옥생활 1 - 서울 구치소

시위가 끝난 후 서대문경찰서를 거쳐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면서 감옥생활이 시작되었다. 감옥에는 여러선배들이 와 있었고, 이미 대학 1학년 여름이 지나면서 졸업을 포기하고 감옥 갈 각오를 했던 터이고, 민청학련 선배들로부터 무용담도 자주 들었던 터이라 그곳 생활에는 잘 적응할 수 있었다. 한의학을 공부하셨던 둘째 형님으로부터 요가도 배워뒀기에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자신이 있었다. 감옥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큰 형수께서 전해주셨다. 무주 구천동에 계셨던 어머니께서 건강이 여의치 못해 수유동 큰 형님댁에 와 계시던 중 내 소식을 궁금해 하시어 임종 며칠 전에 사실을 알려 드렸다고 했다. 마침 그때 서울구치소에 계시던 리영희 교수도 모친상을 당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동병상련의 아픔을 느꼈다. 큰 불효를 했다는 자책 속에서 이틀간 독방에서 외로움을 달랬다. 큰 형수님은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시집을 와 초등학교 시절부터 바쁘신 어

머니를 대신하여 학부모 노릇을 해주셨고 내가 서울 형님댁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더없이 가까워진 사이였다. 재판정은 물론이고 면회를 도맡아 와 주셨다.

당시 감옥에는 가족 외에는 면회가 되지 않았고 편지도 들어오지 않았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내게 많은 편지를 보냈던 동기 여자친구의 편지를 한 통도 받을 수 없었던 것도 애석한 일이었다. 친구와 선후배들의 편지 한 통 받지 못하는 고립감은 그나마 재판정에서 잠시라도 얼굴을 보는 것으로 해소하고 했다. 법정으로 가는 날은 7명이나 되는 우리 공범들(?)이 함께 만날 수 있는 반가운 시간이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만났던 변호사님들 역시 더없이 반가운 분들이었다. 나는 법정에서 당당하게 학생으로서의 소신과 신앙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 감옥살이를 불사하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78년이 되면서 각 대학에서의 시위는 급속히 확산되었고 그래서 감옥은 수많은 대학생들로 채워지고 있었다. 그런데 연세대에서의 시위 소식은 들리지 않아 속으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었다. 서울구치소는 1백 명도 넘는 긴급조치 위반자로 넘쳐났으며 재소자들의 협조 속에 3.1절, 4.19혁명일, 5·13 긴급조치 발동일 등에는 유신철폐 등의 구호를 외치는 집단적인 투쟁을 벌였고 때로는 단식투쟁도 불사했다. 6월에는 그 빈도가 늘어났다. 이러한 투쟁으로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전망(방을 옮김)을 당하기도 했고 마침내 대전, 대구, 광주 등 지방구치소와 교도소로 대거 이감을 가게 된다.

### 감옥생활 2 - 대전교도소에서

78년 6월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고도 소내 투쟁을 계속하다가 7월에 대전교도소로 이감을 가게 되었다. 대전교도소에 도착하자마자 얼음같이 차가운 지하수로 샤워를 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간단한 이감 절차를 마치고 운동 금지 2개월의 징벌을 받았기 때문에 독방에서 지내야 했다. 답답하기도 했지만 한결 편해졌다. 먹을 것이나 영치금은 충분했고 그래서 마침 통방을 하다가 옆방에 들어온 장기복역수(이00. 대구 출신 60년 남파간첩)를 잠시 만나기도 하였다. 벽 중간이 뚫려 있었기에 이런 저런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었다. 그곳에서도 재소자를 통해 쪽지통방이 이루어져서 8월 15일을 기해 단식투쟁을 하다가 보안과에 끌려가 꼬꽁 묶여 고생을 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서울구치소 소내 투쟁으로 추가 재판

을 받아야 했다. 1978년 9월 대전지법에서 징역 2년6월을 추가 선고받았다. 추운 대전교도소 독방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냉수미찰, 건포미찰을 했다. 그리고 담요를 꿰매어 침낭을 만들어 그속에 발을 넣고 온수를 담은 물병을 발치에 두고 앉아 몸을 데웠다. 그러다가 다시 형이 확정되면서 기결수 사동으로 옮겼다. 그곳에서 신영복 선생, 박성준 선생을 만났다. 신영복 선생은 같은 사동이라 운동시간마다 뵈 수 있었고 해방 후 역사와 대전교도소에서의 생활을 들을 수 있었다. 내가 머물렀던 방에는 일반장기수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개 10년 이상이었다. 그래서 내가 받은 2년 정도는 그분들의 표현대로 '오줌 누는 시간 밖에 안 되는 정도'라는 생각에 저절로 머리속여 겸손할 수밖에 없었다. 그 가운데 제일교포 장기복역수가 있었는데 고 박정희대통령 암살 미수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한다. 정보부에서 고문을 받다가 뛰어내려 다리 한 쪽이 부러져 불구가 되었다고 했다. 테러리스트의 길을 사내답게 걸겠노라 했는데 90년 초반에 연락이 닿아 부산에 가는 길에 만나보니 대학교 앞의 호프집에 지배인으로 일하고 있었다. 결혼해서 자리잡고 살고 있는 집에까지 갔던 적이 있었다.

교도소 내 도서 반입과 관련하여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이 있다. 당시 <해방신화>(구피에레즈 저)책은 신화책이라는 이유로 제제 없이 들어올 수 있었던 반면 <여성의 신비>(베티 프리단 저) (여성해방운동 관련서적)라는 책은 제목이 선정적 내지는 외설적이라는 이유로 반입이 금지되었다. 그 덕분에 해방신화류 책은 여러 곳을 떠돌며 감옥에 갇혀 새로운 정보와 시대변화상에 갈증을 느끼고 있던 장기복역수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되어 주었다. 나중에 감옥에서 나와 출소한 장기복역수들께서 함께 거주하시는 집을 방문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반갑기도 했다.

### 출소와 새로운 시대

1979년 7월 제헌절을 맞이하여 형집행정지로 석방이 되었다. 몇 달 남지 않은 상태에서 출소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준법서약서를 써야 했는데 이를 두고 한참 고민을 했다. 모두들 나가서 빨리 운동을 열심히 하자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대대적인 출소를 하였다. 감옥에서 나와보니 세상이 많이 바뀌어 있었다. 민주화의 열기가 후끈 달아오른 상태였고 우리

는 환영을 받으면서 거리를 활보할 수 있었다. 먼저 무주 구천동에 있는 어머니 산소를 방문하고 아버지께 인사를 드렸다. 당신은 일제시대 일본에서 사회당도 겪어 보았다며 후회 없느냐고 한 마디만 하셨다. 오랜만의 부자지간의 대화였다.

대학의 동료와 후배들을 만날 수 있어 너무 반가웠다. 갑작스런 출소라 머리를 기를 틈이 없어 이른바 뺨뺨머리였기에 교외를 나가다가 가끔은 헌병들로부터 검문을 받기도 했다. 남겨둔 영치금과 격려금을 모아 등산장비(비싼 텐트는 아직까지 잘 쓰고 있다)를 마련하고 전국일주 여행을 하다가 제주에도 들렀다. 원두막에 들러 할아버지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주4.3항쟁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사회 분위기가 조금씩 자유로워진 덕분이기도 하겠지만 이야기가 통한다고 생각한 탓일 것이다.

가을이 되면서 나는 기독교청년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기장교단의 청년연합회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덕분에 서울에 있는 여러 진보적인 교회대학생회와 청년회, 특히 모교 회인 수도교회 후배들과 MI도 자주 갔다. 교회 조직은 전국적인 틀을 갖추고 있었기에 연합 활동은 지방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었다. 대학 시절부터 알던 선후배 동료들이 많았기에 활동은 수월했다. 나중에 민중교회 운동을 하거나 민주화운동 그리고 또다른 시민운동을 할 때마다 당시에 함께 했던 선후배, 동료들을 만날 수 있었다. 소유물은 아니지만 나에게에는 소중한 자산이다. 좋은 동지들이 있다는 것은 언제나 든든한 일이다.

그러던 중 10.26 사태로 박정희의 죽음과 더불어 유신체제는 종언을 고하게 되었다. 학교는 휴교하게 되었고 핑계감에 교회 후배들과 함께 강릉으로 MI여행을 떠났다. 바다를 좋아하던 나는 11월 초 동해바다에서 옷을 입은 채로 수영을 하면서 낭만을 즐겼다. 우리는 민주화의 봄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활동하였고 그러다가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가 등장하는 12·12 쿠데타를 맞이하게 되었다. 불안감이 엄습하였다. 그렇지만 봄을 맞을 준비를 회피할 수는 없었다. 아주 길게 낙관적으로 보면 꽃샘추위 같은 것이겠지만 그 추위를 예감하며 온 몸으로 맞서야 하는 자의 긴장이 있었다.